



[보도자료]

RFID 수하물 추적 시스템 전세계 도입 준비 완료

- 제 75 차 IATA 연차총회 결의안 채택 -

서울 (2019년 6월 2일)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는 제 75 차 연차총회에서 무선 주파수 인식(이하 RFID) 기술 기반 항공 수하물 추적 시스템의 전세계적인 도입 지원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여정의 주요 시점에 걸쳐 수하물을 보다 정확하게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baggage messaging) 표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항공통신공동체(이하 SIT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 취급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수하물은 2018년 연간 총 43억 개의 수하물 중 0.06%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 대비 70% 감소한 수치이며, 잘못 처리된 수하물 중 99.9%가 평균 2일 이내에 주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발생한 수하물 사고는 2천 5백만 건에 육박하며, 이 수치는 추적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향후 20년 안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RFID의 인식률은 99.98%로 바코드보다 월등히 높다. 항공사는 수하물 사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을 통해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RFID 기술과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을 함께 사용하면 수하물 사고율을 최대 25% 낮출 수 있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Alexandre de Juniac) IATA 사무총장 겸 CEO는 “수하물의 정시도착은 승객에게 중요하다. 만에 하나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승객은 수하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한다. RFID 기술 도입과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 채택으로 수하물 사고율을 25% 낮추고, 잘못 처리된 수하물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항공사들에게 ▲RFID 기반 수하물 태그로 전환 ▲RFID 데이터 알림을 활용한 공항 및 지상조업사 대상 수하물 사고 예방 절차 도입 등을 촉구한다.

결의안의 정확한 도입 시기는 언급된 바 없지만, 향후 4년 이내에 전세계적으로 RFID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의 중요성

이러한 변화를 일궈내려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의안은 공항에 RFID 기술 기반 수하물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상조업사에게는 수동 추적 작업을 가능한 한 RFID 기술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드 주니악 사무총장은 “RFID 추적 기술 도입과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 채택은 항공사, 공항, 지상조업사 등 유관기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 목표는 고객 만족이다”고 덧붙였다.



결의안 전문은 IATA 공식 웹사이트 <http://www.ia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사항

RFID 기술의 장점

RFID는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하물 태그를 자동으로 인식·추적하는 기술이다. 수작업 없이 수하물의 인식 및 추적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엔드투엔드(end-to-end) 추적 기능 강화** - 수하물 추적이 용이해 취급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고 수하물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 수하물 사고율이 25% 감소되었다.
- **하역작업 개선** - 보다 빠른 하역작업이 이루어져 항공기 지연을 줄인다. 이 외에도 자동화 및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수동 작업을 최소화한다.
- **제 753 호 결의안 채택 용이** - 수하물 추적 지점 추가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바코드 스캐너에 비해 도입 비용이 매우 낮다.
- **데이터 일관성 제고** - 기존 바코드 시스템은 오류정정 기능의 부재로 데이터의 일관성이 낮을 수 있다. RFID는 수작업 없이 99%의 인식률을 자랑한다.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 이행의 장점

대부분의 수하물 사고는 수하물 상태 알림 오류·거부로 발생한다. 표준화된 알림 언어 및 절차 도입 시,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 이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데이터 콘텐츠 개선** -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콘텐츠 양이 증가한다.
- **복잡성 감소** - 알림 유형 개수가 크게 줄어 알림의 내용 및 대응조치 파악이 한결 수월해진다.
- **보안 강화** - 기존 알림 시스템은 데이터 보안성이 낮는데 비해, 첨단 표준은 데이터 교환에 대해 암호화 및 서명 기능을 제공하여 정보의 보안성 및 진위성을 보장한다.
- **문제해결비용 절감** - 수하물 데이터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전달되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해결비용 또한 절감한다.
- **알림 비용 절감** - 오늘날 수하물 상태 알림 시스템은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전문 형태(teletype message)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첨단 수하물 상태 알림 표준은 추가비용 없이 인터넷 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제항공통신공동체(SITA) 수하물 보고서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s://www.sita.aero/resources/type/surveys-reports/baggage-it-insights-2019>

미디어 문의

[IATA]

Albert Tjoeng / Assistant Director, Corporate Communication AP / tjoenga@iata.org

[국내 홍보 대행사 케첩] SKR-IATA@ketchum.com

신혁수 사원 / David Shin, Account Executive / 02-559-9603

김승윤 사원 / June Kim, Account Executive / 02-559-9627

김성이 부장 / Sunny Kim, Account Director / 02-559-9621